아중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전주시, 올 하천정비사업 국가예산 175억원 확보… 2021년까지 추진

전주시가 모세혈관처럼 얽혀진 전주의 물길을 되살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아중천도 전주천·삼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아중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 수중생물과 주변생물들이 많아져 전주가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침체된 동부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아중호반도시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2017년도 주요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국가예산 175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주요 하천정비 사업은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산천 소하천 정비사업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모두 6곳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부가 실시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300억원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지역은 우아동1가 재전마을에서 우아동3가 소양천 합류점까지 6.25㎞구간의 이르는 아중천 상·하류로, 시는 하천 건천화와 기능을 상실한 보로 인해 정체수역이 발생하고, 수질악화와 악취문제가 제기돼온 아중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올해 국비 6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부 기술검토,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마무리예산도 모두 확보함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현재 75%의 공정률을 기록중인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올해 국비 47억원을 전액 확보하고, 최근 사업 핵심구간인 수달보금자리 조성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도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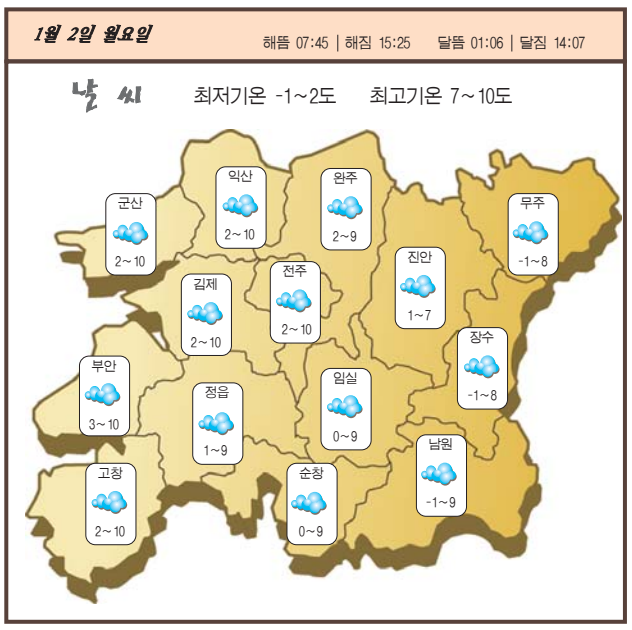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경우, 핵심구간인 남부시장 주차장 정비 등 내년도 잔여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국비 20억원을 확보돼 내년 말까지 사업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철길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올해 국가예산 20억원과 안산천 소하천 정비사업 내년도 국가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하천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면 재해예방과 하천 수생태계복원 및 수질개선을 통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활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은 "앞으로도 국토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관련기관, 정치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공조를 통해 하천정비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도심 곳곳 자연과 문화 · 소통이 있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녹지 공간 조성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전주시는,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총 13개의 녹지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녹지공간을 늘려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주민생활권 주변을 숲으로 만드는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총 13개의 녹지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온통 숲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를 녹지축으로 연결하고, 시민들에게는 생활권 주변에서 다양한 테마를 가진 생태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도심 곳곳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민선6기 중요 공약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총 16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녹색예술거리 나눔 숲 1곳과 복지시설 나눔 숲 2곳, 도심 동네숲 8곳, 옥상녹화사업 1곳, 마실길 조성 1곳 등 총 13개의 온통 숲을 조성했다.

먼저, 시는 올해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전북대학교 학교부지와 소화진달네집 등 복지시설 2곳에 인근주민들과 노약자 및 사회적 약자층도 숲이 주는 복지와 문화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눔 숲을 조성했다.

특히 전북대학교 구정문과 신정문 구간(권삼득로) 인도와 전북대학교 학교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녹색예술거리 나눔숲'은 기존 도로 옆 삭막한 인도를 식재 공간으로 바꾸는 대신 캠퍼스 내부에 인도를 확보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만들었다.

시는 또, 도심 동네숲과 옥상녹화사업, 마실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는 도심 속 열린 녹지 공간을 확충했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온통 숲 프로젝트를 통해 총 68곳의 녹지공간을 확충한 상태로,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32개 녹지공간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도 25억여 원을 투입해 백제대로 열린 녹지조성 등 대단위 가로 명품숲을 포함한 15개소의 온통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는 자연과 문화, 소통이 공존하는 숲 조성 사업으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시키고, 아름다운 녹색 숲 속에서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즐기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풍남학사 입사생 모집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전주시를 선도해 나갈 인재양성의 요람인 '풍남학사'의 2017년도 입사학생을 선발 모집한다.

2017년 풍남학사 선발인원은 88명(여 45, 남 43, 장애인 각 1명 포함)으로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입사원서를 접수 받아 학업성적과 생활정도 등을 심사해 2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학사 지원 자격은 수도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으로 전주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이고, 그 보호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50점)과 생활정도(50점)로 배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사회적 배려자와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게는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구기동)에 소재한 '풍남학사'는 지상 3층 지하 1층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사학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식당, 체력단련실, 독서실, 세탁실, PC홀의 시설을 갖추고, 1실 2인 기준의 사실별로 책상, 침대, 옷장, 샤워실과 화장실, 냉난방기와 인터넷망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입사학생은 입사비(년 7만원) 및 매월 15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하면 된다.

풍남학사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을 참조하거나 전주풍남학사사무소(02-6925-288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군산대, 동계 학생해외봉사단 출정식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 '2016학년도 동계 학생해외봉사단'이 오늘부터 16일까지 13박 15일 동안 네팔 카투만두와 룸비니에서 동계 학생해외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에서는 카투만두 초중학교, 룸비니 초중학교 등지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교육봉사, 노력봉사, 보건교육의 봉사활동과 문화봉사 및 체육용품, 학용품, 의약품 등에 대한 기부활동 등이 펼쳐지게 된다.

또한 참가단원들은 현지인의 생활을 이해하며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카투만두 민속마을 등도 탐방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